

자가임신진단시약 오판 위험

태아생명 직결된 테스트 오류 무방비

연간 60만명 사용. 주의사항 설명 부실

현재 시중 약국에서 판매되는 자가 간이 임신진단 시약이 대부분 사용상 '주의' 혹은 테스트의 오류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거나 부실한 것으로 YMCA 시민중계실 조사 결과 나타났다.

유명제약회사 제품 11개를 수거하여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나 효능에 대한 광고 등 표시내용을 조사한 결과 국제약품의 '두테스트'만이 비교적 우수한 설명과 주의 사항을 고지하고 있으며 광동제약, 삼천당제약, 동신제약의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이 전무한 반면 오차 완전제거 등 성능에 대한 지나친 과장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약품의 '두테스트'의 경우 "임신여부를 보조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확정진단하는 것이 아니며 검사 결과만으로 정상임신여부 판별이 불가능하니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단을 받을 것, 임신이 아니라도 생리

가 시작되지 않으면 재검 또는 의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표시하였으나 타 회사의 경우 임신인데도 임신이 아닌 것으로 나올 경우에 대한 주의 사항이 없거나, 주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보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한 경우는 거의 없

에게 비슷한 명칭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들 제품 대부분이 99%의 정확도, 정확성 보증을 내세우는 등 소비자의 과신을 부추기는 표현을 지나치게 사용한 반면 연간 5-60만명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때 1%인 5-6천

생리촉진제를 복용하였다. 그 후에도 생리가 없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임신 5주임이 드러나 약물복용에 의한 기형아 출산을 우려해 결국 중절수술을 받았다. 결혼 후 2년 동안 임신을 기다려 온 이 주부는 사용했던 제품을 시민중계실을 통해 고발했으나 해당 제약회사는 소비자의 배상 청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시민중계실은 식품의약품 안전본부에 문제의 제품에 대한 효능 및 부당광고에 따른 피해가능성 등에 대한 보다 정밀한 조사와 사후조치를 요청키로 하였다.

자가 임신 진단시약의 경우 사용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 사용자의 세심한 주의도 필요하겠지만 효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제약회사의 무책임함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임신진단테스트기 사용한 주부,

측정결과 잘못으로 임신중절

해당 제약회사 소비자 배상 청구 외면

고 아주 깨알같은 글씨의 상투적인 주의 사항에 그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시중에 있는 약국에서 5-8천원에 판매되는 간이 임신진단시약은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연간 50억원 정도의 매출을 나타낼 만큼 사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수입 판매되고 있고 20여개 이상의 제품이 소비자

명의 태아가 겪을 수 있는 오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신당동에 사는 주부(25세)가 날짜가 지나도 생리가 없자 동네 약국에서 7제약사의 임신진단테스트시약을 구입하여 시험해 보았으나 임신이 아니라는 측정 결과를 믿고 약국에서 구입한